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국어지식 문항 분석

-‘2005학년도~2009학년도’를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국 신 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국어지식 문항 분석

-‘2005학년도~2009학년도’를 중심으로-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국 신 애

인 준 서

국신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이상신 인

심사위원 이지영 인

심사위원 황선엽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2009학년도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단순 암기나, 지식을 묻는 학력고사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등장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적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 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이다.

이것은 선천적인 능력이나 보다 오랜 시간에 형성된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학업능력 중 대학수업에 필수적인 일반적 학업적성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고, 특정 교과별로 나누어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과에 대한 단순 암기를 탈피하여 언어활동 중심 수업의 필요성이 부각된 평가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영역이다. 언어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바를 측정·평가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 출제 영역은 듣기, 쓰기, 읽기, 국어지식, 문학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어지식영역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지식 영역이 어떻게 출제되어지는지 각 문항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앞서 서술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국어지식영역의 교육체계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어지식영역의 더욱 발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2
3. 선행연구 검토	4
II. 기초적 논의	8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평가 목표 및 내용	8
1) 내용 영역의 평가 목표	8
2) 행동 영역의 평가 목표	10
2. 국어지식영역	15
1) 「교육과정 해설서」의 국어 지식 내용	15
2) 국어지식 교육의 필요성	23
III.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	27
1.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출제경향	27
2.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문항 분석	34
1) 어휘	34
2) 어법	54
IV.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결과 및 제안	65
1. 교육과정과 국어지식 문항과의 상관성	65
2. 국어지식문항 출제 방안 제안	69
1) 국어지식문항의 출제 비율 확대	69
2) 교육과정 영역별 균등한 출제	70
V. 결론	72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2009학년도까지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 치러진 학력고사는 단순 암기 사항이나 지식을 묻는 평가 방법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¹⁾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 선천적인 능력이나 보다 오랜 시간에 형성된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학업능력 중 대학수업에 필수적인 일반적 학업적성을 측정한다는 것,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된다는 것, 특정 교과별로 나누어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된다는 것, 측정하는 정신 능력은 사고력, 고등정신능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것이다.

1994학년도부터 시작되어 2009학년도까지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과서에 대한 단순 암기를 탈피하여 언어활동 중심 수업의 필요성이 부각된 평가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1) 황정규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1.

수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한다.

수능시험의 여러 영역 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언어영역은 역대로 가장 문항 비중이나 배점 비중이 높았던 영역이었다. 이러한 언어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바를 측정·평가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 출제 영역은 듣기, 쓰기, 읽기, 국어지식, 문학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어지식영역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2009학년도까지의 국어지식영역의 문항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평가 중에서 국어지식영역의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2009학년도까지 17회제²⁾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17회 중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언어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05학년도~2009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은 05~07학년도까지 60문항 08,09학년도는 각각 50문항씩 총 280문항이 출제되었다. 이 중에서 국어지식영역의 문항은 2005학년도 9문항, 2006학년도 10문항, 2007학년도 8문항, 2008학년도 5문항, 2009학년도 4문항으로 총 36문항이 출제되었다.

총 36개의 국어지식영역 문항들을 어휘영역과 어법영역으로 나누었다. 어휘영역은 다시 ‘어휘의 이해’,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어휘의 문맥

2)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두 번 실시되었고 1995학년도부터 매년 1회씩 실시되어 2009학년도까지 총 17번 시행되었다.

적 의미 이해’, ‘어휘의 관용적 의미 이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휘 영역은 ‘어법에 맞는 언어 사용’, ‘문맥에 적절한 언어 사용’, ‘맞춤법에 맞는 언어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과 연도별 국어지식 영역 문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국어지식영역 문항 분류

1) 어휘	(1) 어휘의 이해
	(2)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3)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4) 어휘의 관용적 의미 이해
2) 어법	(1) 어법에 맞는 언어 사용
	(2) 문맥에 적절한 언어 사용
	(3) 맞춤법에 맞는 언어 사용

<표2> 2005학년도~2009학년도까지의 국어지식 영역 문항

년도	개수	문항번호
2005	9	12, 13, 14, 32, 36, 43, 51, 55, 60
2006	10	13, 14, 23, 30, 38, 43, 46, 47, 51, 60
2007	8	13, 14, 19, 27, 36, 45, 50, 60
2008	5	11, 12, 22, 26, 43
2009	4	11, 12, 46, 50

이상의 36개 문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본 논문을 진행하도록 한다. 기초지식 검토의 과정으로 국어지식 교육의 필요성과 국어지식 교육의 목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분석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언어영역 평가 목표 및

내용을 연구하기로 한다. 이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을 마친 후 2005학년도~2009학년도의 국어지식 영역 문항을 앞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고 유형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국어지식 영역 문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 15년여가 지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다. 본 장에서는 그 동안 있어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화정(2002)은 2002학년도 읽기 영역 문항 48개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언어영역 평가문항의 난이도 예측 관련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영역의 문항 난이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지문의 문장 수, 문두의 질문 형태, 어휘 능력의 측정 여부라는 세 가지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어휘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에 비해 더 어렵다는 결과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중심, 사고력 배양 중심의 국어교육에 구체적인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험생들의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문항 난이도 예측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으나, 한 회의 48개 문항만을 분석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장유미(2003)은 90년대 중반 이후 듣기를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2002학년도~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듣기, 쓰기 영역의 문항과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전반부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데, 수능의 개념과 성격, 평가 항목 및 요소, 언어 영역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듣기 영역의 목표와 수능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하위 단위에서는 듣기영역의 목표와 출제 경향, 평가요소, 발문유형에 대해 서술하고 이어서 실제 최근 3년간 수능 듣기 문항을 분석하였다. 듣기 문항을 어휘능력, 사실적 이해, 추리·상상적 이해, 비판적 이해, 논리적 이해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쓰기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듣기영역과 마찬가지로, 쓰기 영역의 목표와 출제 경향, 평가요소, 발문유형에 대해 서술하고 실제 최근 3년간의 수능 문제의 쓰기영역 문항을 분석하였다.

심지연(2003)은 1994학년도~2001학년도까지의 언어영역 중에서 어휘력과 관련된 평가문항 52개를 유의관계, 다의관계, 변의관계, 단어 의미,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구절 의미, 의미 속성, 단어 의미의 통시적 변화, 사자성어, 사전 활용 능력, 경어법, 맞춤법, 동음이의어, 접사의 쓰임의 총 1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것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성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어휘 학습에 대한 인식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어휘력의 중요성과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가 단편적인 어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과 어휘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학교 현장에서 영어와 달리 국어의 어휘 학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연화(2004)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과 고등학교 「국어(상),(하)」, 「국어생활」의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핀 후 이를 반영한 평가 문항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총 12회 언어영역 문제 중에서

국어 지식에 관한 부분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어지식 영역 교육의 상관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국어지식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영현(2005)는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관계를 설명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개정의 중점 사항, 교육내용의 선정 등을 기술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개념정리, 각 영역의 구체적 평가목표들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평가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재근(2005)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지식영역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을 논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2000학년도~2005학년도의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언어영역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였다. 1994학년도~2005학년도의 언어영역에 대한 개관과 2000학년도~2005학년도까지의 국어지식영역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매년 일정치 않은 문항 수, 내용의 불균형, 낮은 문제 수준, 국어지식영역에 대한 소홀함, 객관식 위주의 문제출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재근(2008)은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들을 세부 영역별로 재분류하여 문법과 국어과 타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들의 출제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법 문항과 교육과정과의 상관성, 문법 문항 내에서 문법 영역별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문법 문항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언어영역의 출제 경향이 문법교육의 위상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문법 문항의 출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그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 관련한 연구는 교육과정과의 상관성 비교, 듣기 교육의 실태와 평가 방법의 개선

안 연구, 어휘력 문항 분석 연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인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 중 국어지식영역의 문항을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II. 기초적 논의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평가 목표 및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듣기, 쓰기, 읽기 등의 우리말 사용 능력을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시험이다.

1) 내용 영역의 평가 목표³⁾

(1) 듣기

듣기 · 말하기의 원리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기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사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듣기 · 말하기의 실제	독화와 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듣기’는 여러 형태의 듣기 자료를 듣고 내용을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 발전시키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말하기 전략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의사소통능력과 관계가 깊다. 듣기 · 말하기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

3) 문영진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메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는 다음과 같다.

(2) 읽기

단어, 문장, 문단 읽기	글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 문단의 의미 파악하기 부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통합된 의미를 구성해내기 지식이나 경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상세화하기
글 전체 읽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와 의도 파악하기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 파악하기 글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읽기 과정의 인식	읽기에 필요한 사전 활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글의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이해하며 읽기 읽기의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 발전시키기

읽기는 언어 영역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이다. 여기에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글의 구조와 내용 등을 재조직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나아가 문자 읽기뿐 아니라 다양한 그림 읽기, 표 읽기 등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읽기의 경우 비문학 제재와 문학제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 평가 내용은 행동영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3) 쓰기

계획하기	문제를 발견하여 내용을 생성하기 논지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 평가하기 적절하게 개요 구성하기
표현하기	문장과 문단 바르게 쓰기

	내용 전개의 타당성과 효과를 고려하며 글쓰기 여러 형식의 문장 표현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조정하기	글 구조와 내용, 어법 등을 고려하여 글 고치기 글의 효용성과 가치, 독자를 고려하여 글 고치기 쓴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전달하기

쓰기는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쓰는 활동을 평가하기보다 지필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용을 생성하며 조직하는 능력과, 실제로 글을 쓰고 고쳐 쓰는 능력이 포함된다.

2) 행동 영역의 평가 목표⁴⁾

(1) 어휘 · 어법

어휘의 이해와 사용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휘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기 어휘의 짜임과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어휘 용법의 이해와 사용	어휘의 지시적,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휘의 비유적, 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법의 이해와 적용	어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기 문맥과 문체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 언어규범과 예절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기 문장과 문단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어 사용하기

‘어휘 · 어법’에는 이미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그 뜻을 깨닫고, 모르는 어휘의 뜻을 추리해내는 능력,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를 유추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기초적인 한자의 판별 능력이나 고사 성어와 같은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

4) 문영진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메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한, 문장과 문단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도 어휘·어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습득한 어휘의 양을 비롯하여 그 정확하고 창의적인 사용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능력이 ‘어휘와 어법’의 측정 요소가 된다.

어휘의 정확한 의미는 실제로 사용되는 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맥과 관련한 상황에서 평가하는 데 비중을 둔다. 어휘간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측정하되 표현과 이해의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활동과 관련시켜 측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2) 사실적 사고

내용의 사실적 이해	내용의 정보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글 전체의 내용과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글의 구조에 대한 사실적 이해	글의 구조 단위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글의 형식적 요소와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사실적 사고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사실적 사고의 측정 요소가 된다.

(3) 추론적 사고

내용의 추론	언어 또는 사실을 근거로 내용을 미루어 알기
	언어 또는 사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줄 알기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과정과 규칙에 맞게 사고하기
구조의 추론	텍스트 구성에 관련된 요소를 적절하게 추리, 상상하기 언어 표현에 관련된 요소를 적절하게 추리, 상상하기
과정의 추론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하여 이해하고 표현하기 의도와 관점을 명확히 하여 이해하고 표현하기 논지 전개에서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추론적 사고란 언어의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추론을 통하여 보다 깊고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언어 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과 같은 언어 표현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논리적 추론은 언어 사용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교육이 그 나름의 논리를 통한 객관적인 진리의 발견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논리학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자연 언어의 표현 형태를 통해서 이 능력을 측정한다. 그 이유는 논리적 약호나 극도로 단순화된 공식에 가까운 형식을 묻는 방식은 논리학 지식의 암기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론하는 능력은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이다. 경험이나 사유 면에서 다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읽기 문학 영역의 기본적인 평가 목표이다.

내용의 추론은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밖의 사항까지 추론하고 적용하는 능력까지가 측정 요소가 된다.

과정의 추론은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되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된 글에 담겨 있는 전제나 태도를 분석하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 등이 측정의 요소가 된다.

구조의 추론은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할 내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그 조직을 이해하거나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표현 방식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4) 비판적 사고

내적 준거에 따른 비판	내용의 정확성과 내용 전개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구조와 표현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타당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효용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비판적 사고란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흔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이에 해당하지만, 비문학적인 글에서도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이나 독자들의 태도에 관한 비판 능력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5) 창의적 사고

내용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거나 생성하기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거나 새롭게 활용하기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언어활동 계획 세우기
구조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기 같거나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하기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구조를 생성하고 활용하기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개성적이고 참신한 표현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여러 가지 수사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목적, 대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창의적 사고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적인 언어활동이다. 창의적 사고는 언어활동의 과정에서 자료나 텍스트의 표면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와 비슷하지만, 추론적 사고가 수평적인 확산 인데 비해 창의적 사고는 수직적인 수준 오름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창의적 사고에서는 내용, 구조,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이라는 세 측면을 측정한다.

내용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정하여 주어진 정보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생성하는 능력까지가 측정의 요소가 된다.

구조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할 내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조직을 이해하거나 창의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내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

가 된다.

표현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되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리, 상상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된 글에 담겨 있는 전제나 태도를 분석하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2. 국어지식영역

1) 「교육과정 해설서」의 국어 지식 내용

본 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지식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하여 「교육과정 해설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으로서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 7 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5)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5) 교육부(1997),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내용 체계에서 배워야 하는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3> 국어지식 영역 교육체계⁶⁾

국 어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 운 - 날 말 - 어 휘 - 문 장 - 의 미 - 담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에 대한 태도 - 동 기 - 흥 미 - 습 관 - 가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 법 		

이와 같은 내용 체계에 따른 국어 지식 영역의 학년 별 내용은 지식의 난이도와 순차성, 언어 구조의 복잡성,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국어 이해와 탐구’ 범주의 교육 내용은 ‘언어의 본질적 속성 → 언어와 주변 세계와의 관계’ 순으로, ‘국어에 대한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은 ‘우리말의 중요성 인식 → 규범에 맞는 국어 사용의 태도 형성 → 우리말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형성’ 순으로 내용을 배열하였다.

【10학년 국어지식 교육 내용】

6) 교육부(1997),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0-국-(1)]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이 내용은 언어와 우리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학생들이 알아야 언어 사용의 가치를 알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알기,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알기,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알기,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상호 영향 관계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언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여 인간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언어와 사고 작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들이 상호 작용을 한다는 점,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고 이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양식의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본】 ○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말한다.

【심화】 ○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상호 영향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0-국-(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이 내용은 국어의 변화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알아야 국어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에 부응하는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 알기, 국어의 계통 알기, 문자 및 표기의 변화 알기, 음운의 변화 알기, 형태의 변화 알기, 조어법의 변화 알기, 어휘의 변화 알기, 통사의 변화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어의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 활동

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국어사를 시대 구분할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기, 옛날의 낱말들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 알아보고 이에 해당하는 현대 국어의 낱말들과 비교해 보아 국어의 음운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문장 종결의 변화, 높임법의 변화, 시제법의 변화, 사동법의 변화, 피동법의 변화, 부정법의 변화, 인칭법의 변화, 격의 변화, 문장 구성의 변화 등을 정리하게 하여 국어 문법 변화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추론하기,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의 의미를 그 낱말의 옛날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국어 의미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국어 변화의 의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본】 ○ 현대 국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

【심화】 ○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0-국-(3)]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이 내용은 문법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는 학생들이 문법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변별하고 이를 국어사용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문법 요소의 종류 알기, 문법 요소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의 문법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용법을 지키지 않은 표현은 어색하거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용 예를 통해서 비슷한 의미 기

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문법 요소와의 차이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여, 이들 문법 요소들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컨대, 조사 ‘-조차’, ‘-마저’, ‘-까지’가 어떤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용례를 찾아 확인하게 한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사용된 용례에서 각각을 바꾸어 봄으로써 그 자연스러움 여부와 의미의 변동을 확인해 보게 하여, 문법 요소의 정확한 의미 기능을 알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 ○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찾는다.

【심화】 ○ 문법 요소의 쓰임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심화】 ○ 문법 요소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쓴다.

[10-국-(4)]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이 내용은 문장의 짜임새를 아는 학생들이 정확한 국어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 알기,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 알기, 문장의 종류 알기,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표현 상황에서 적절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국어의 문장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다양한 문장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들 문장은 여러 가지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그런 다음, 문장 쓰기에서 자주 오류를 범하는, 문장 성분들 간의 호응 관계에 유의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때 가능한 한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기본】 ○ 서술어의 수에 따라 문장을 분류하고, 서술어가 둘 이상 있는 문장을 결합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심화】 ○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시켜 주는 요소를 기능에 따라 정리한다.

[10-국-(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이 내용은 담화의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아는 학생들이 상황에 적절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장면의 개념 알기, 담화와 장면의 관계 알기, 장면에 따라 담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해하기, 장면에 따른 담화의 표현 양상 이해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장면에 따른 우리말의 표현 방식을 알고, 이를 국어사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담화의 장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즉, 담화의 장면은 언어 외적 장면과 언어 내적 장면으로 이루어지며, 언어 외적 장면은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언어 내적 장면은 하나의 발화의 앞과 뒤에 이어지는 발화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그런 다음, 담화의 장면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따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게 하여, 장면에 따른 우리말의 특징을 정리하게 한다.

【기본】 ○ 담화에서 장면에 따라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찾는다.

【심화】 ○ 담화에 따라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

[10-국-(6)]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이 내용은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알기,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방법 알기, 우리말의 문법 알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각각의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어 수업에서, 그리고 학교 밖의 일상생활에서 문법에 어긋난 우리말 사용의 실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들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게 한다. 그런 다음 수집한 자료를 문법에 맞게 고쳐 쓰게 하고 이러한 자료가 왜 문제가 되는지 토의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평소의 말하기나 쓰기 활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 문법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방송이나 신문, 또는 친구들과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우리말의 문법에 어긋난 국어사용의 예를 수집한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기본】 ○ 문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10-국-(7)]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확한 국어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알기,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방법 알기,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 알기,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학교나 학교 밖의 언어생활에서 문법에 어긋난 우리말 사용의 실태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문법에 맞게 고쳐 보게 하여,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태도 형성은 정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태도는 대부분이 단시일 내에 형성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기본적으로 지필 검사는 부적합하다. 또, 태도 형성의 기본 전제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발적 태도 형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도가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태도가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관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관찰 결과는 누적시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총합하여 종합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기본】 ○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심화】 ○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

[10-국-(8)]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품위 있고 수준 높은 국어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국어 발전의 개념 알기, 국어 발전의 필요성 알기, 국어를 발전시키는 방법 알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 실천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어 생활에서 생기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의 발전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사회적 차원의 국어 발전과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는 출판물의 문장을 관찰함으로써 국어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공식적인 출판물의 문장을 시대별로 비교하여 봄으로써 국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정리하게 한다. 개인적 차원의 국어 발전과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써 온 자기의 글들을 가져오게 해서 이를 관찰하게 한다. 그런 다음, 자기가 쓴 문장 표현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정리하게 한다.

【기본】 ○ 국어가 발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다.

【심화】 ○ 국어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의한다.

2) 국어지식 교육의 필요성

국어지식의 교육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⁷⁾ 첫째,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둘째, 우리말과 글에 대한

7) 김광혜,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이해를 위하여, 셋째, 국어 문화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은 이러한 필요성 아래 전개되며 그 최종적인 목표를 적절한 수준의 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 문화적 교양을 갖춘 한국인, 국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두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들에 대하여 각각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국어교육 전반에서 볼 때 국어지식의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는 국어지식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국어사용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기반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독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문법지식이 필요하다. 국어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적인 규범의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자 학습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후 성인이 된 뒤까지도 국어 교육이 일정하게 지속되어야 필요가 있다.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등과 같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규범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정상적인 국어사용을 위한 기초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국어지식 영역에서 포괄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가 된다.

이 같은 간단한 규범 문제에서부터 나아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 응집성을 갖춘 텍스트 생산 능력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련해 나아가야 하는 능력이다.

(2) 국어의 이해를 위하여

국어지식의 학습은 또한 국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각 급 학교의 ‘국어’ 과목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때, 국어 자체는 물론 다양한 국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경험도 필수적인 과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국어 외의 여러 다른 과목들은 각각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대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경험 제공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말에 대한 이해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과목은 지금으로서는 ‘국어’ 과목밖에는 없다.

국어지식의 교육에서 국어 이해의 기회 확대를 중요 목표로 삼는 것은 또한 현재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문법교육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국어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은 탐구학습인데, 이 방법의 취지는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주입식 방법의 문법교육을 불식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현상을 직접 처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용의주도하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처럼 불완전하며 그것도 일방적으로 취사선택된 몇 가지의 문법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문법 과목이 아니라, 탐구학습 과정을 통해서 언어 및 국어의 본질에 접근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통찰력을 신장시키자는 것이다.

(3) 국어 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이상에서는 국어지식의 교육이 어느 정도 기능적 목적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필요성을 논하였다. 국어지식의 교육은 그 같은 실용성을 한 축으로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 축에는 문화의 전수라는 요소를 가진다. 국어지식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요소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써 국어 문화에 대한 통찰력과 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한국인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요소는 만약에 우리가 국어교육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거나,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가 한국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기능을 위한 도구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국어교육을 설계할 때에도 결론은 비슷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국어라는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국어교육의 주체는 한국인이며 그 언어는 한국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어교육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과 분리되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지식의 교수 학습 내용으로서 문화요소가 중요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국어’ 과목의 외연(外延)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경우 논쟁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관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문화요소까지도 충분히 포괄하는 국어교육이므로 이 항목을 도입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문화요소와 관련되는 국어지식의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역사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일이 된다. 다

른 하나는 우리말과 글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국어의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예컨대, 국어의 변천사, 또는 국어 생활의 변천사 등에 대하여, 나아가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 한글의 독창성, 과학성,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옛 문자, 이를테면 ‘ㄹ, ., ㅇ’ 등의 모습 등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 접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국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를 유지, 보존하고 발전시켜, 그것을 우리의 후손 나아가서는 세계인에게까지도 전수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우리의 2세들에게 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는 사실과 이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다시 후손에게 전승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Ⅲ.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

1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출제경향

이번 장에서는 본고의 검토 대상인 2005~2009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출제경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언어영역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범교과적인 제재로 구성된 언어자료를 듣기, 쓰기(어휘/어법 포함), 읽기 등 언어 사용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되는 2005학년도부터 배점이 100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학년도~2007학년도에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며 2008학년도~2009학년도에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는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는데,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면에서 교육적 가치 및 읽을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한다. 즉,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양 수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글을 선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과서와 관련된 제재를 폭넓게 다룬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성격을 지닌 제재를 선정하기도 한다. 기출된 제재라도 다시 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차등 배점을 실시하는데, 매년 전년도의 평가 결과 및 그 동안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수험생의 역동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도록 기존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지금까지 언어영역의 출제 문항 수와 차등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4> 언어영역 출제 문항수와 차등배점

구분	문항 수	배점	차등배점
1994~1996학년도	60문항	60점	0.8점 1점 1.2점
1997~2000학년도	60문항	120점	1.6점 1.8점 2점
2001~2003학년도	60문항	120점	1.8점 2점 2.2점
2004학년도	60문항	120점	1점 2점 3점
2005~2007학년도	60문항	100점	1점 2점 3점
2008~2009학년도	50문항	100점	1점 2점 3점

언어영역의 듣기, 쓰기(어휘, 어법 포함), 읽기 등은 독립된 문항으로 출제할 수도 있으며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각

문학의 장르별로 통합하여 지문을 구성하거나 과학 제재에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묻거나 예술 일반을 시(詩)와 연관 지어 묻는 등 교과 통합형 문항이 출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언어활동 영역 또는 장르 간 통합뿐 아니라, 매체 간 통합 문항이 출제되기도 한다. 듣기 및 쓰기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들의 실제 삶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생활 통합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도 한다.

지금부터 2005~2009학년도 수능 분석을 시작한다. 2005학년도 언어영역은 2004학년도 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문학작품의 경우 교과서와 EBS 방송에서 다룬 낯익은 작품이 출제되었고, 수능 전에 치른 두 차례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문제유형도 학생들에게 익숙했다.

듣기와 쓰기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많이 다루었다. 어휘, 어법을 포함하여 쓰기가 8문항 출제되었으며, 비문학과 문학의 지문 수 및 문항수가 6:4의 수준을 유지했다. 수필과 고전시가를 복합 지문으로 구성했고, 고전 소설에서는 자료를 주고 두 문제를 풀게 한 작은 세트 형식의 문제가 도입되었다. 2005학년도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창의력 사고와 관련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교과서의 비중은 예년에 비해 약간 높은 모습을 보였다.

2006학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듣기·말하기가 6문항을, 쓰기는 어휘·어법을 포함하여 8문항을 유지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비문학 비중이 높아진 2005학년도의 경향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현대 수필과 고전시가가 복합된 지문 형태 역시 같았다. 문항 난이도는 2005학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휘관련 문제는 2006학년도에서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학 작품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것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박두진의

<청산도>(현대시), 황동규의 <조그만 사랑 노래>(현대시), 양태사의 <야청도의성>(한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광장>의 경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어서, 교과서 공부에 충실한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하였다.

2004학년도까지 언어영역의 지문이 대체로 길어지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5학년도에 이르러 다소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6학년도에서는 더욱 짧아졌다. 또한 지문이나 문항 유형도 평이하였으며, 정답이라고 착각할 만한 답지가 적어 체감 난이도가 낮았으며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휘·어법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한문 문학 또는 한문 국역의 비중이 커진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능 이전의 두 차례의 모의고사 경향을 따른 것이어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EBS 교재의 반영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언어영역은 2006학년도에 비해 다소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익숙한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고 문제 유형 또한 낯익은 유형들이 출제되어서 수능 전 있었던 두 차례 모의고사 중 1차보다는 쉬운 편이었고 2차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듣기 영역에서는 들은 내용을 실제 자료와 연결시키는 적용 문제가 출제되었고, 쓰기 문제의 경우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글쓰기의 기본 원리인 통일성, 일관성에 의거하여 문장의 연결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 어휘 어법 문제는 작년의 어휘 1문제, 어법 1문제에 비해 어법만 두 문제가 출제되어 어법에 관한 지식이 완전히 없거나, 이러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보기에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문제로서 익숙한 유형

이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학생은 당황해하는 문제로 이러한 문항에서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

문학 읽기 부분에서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익숙한 지문이 출제되었고, 비문학 읽기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지문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지문이 길지 않고 평소 접해 볼 수 있던 시사적인 내용과 어렵지 않게 독해할 수 있는 지문이 출제되었고, 문제 유형 또한 낯선 유형이 출제되지 않아 체감난이도가 낮았다.

문학에서는 김중길의 <고고>가 다소 낯설었지만, 이육사의 <교목>,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등 낯익은 지문이 출제되었고, 고전시가와 수필의 복합지문의 경우도 수필이 내용과 약이 쉬운 작품이었으므로 체감난이도는 낮았다. 문제 유형의 경우도 기본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EBS 교재에서 제시되었던 작품과 유형이 비슷하였다.

비문학에서는 제시지문을 섬세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21번과 25번 유형의 경우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기보다는 단순히 지문과 비교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심화 · 확장적 읽기 능력을 요하는 문항의 경우 지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유형이었다.

2008학년도 언어영역은 등급제로 치르는 선택형 수능의 처음으로서 2007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새롭게 바뀐 출제 경향에 맞춘 첫 수능이었으며 범교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출제되어 다소 난이도가 높았다. <보기> 제시형 문제가 전년도(2007학년도) 20%에서 36%로 대폭 증가하였고 부정형 문제가 전체 50문항 중 25문항이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적용과 활용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문학 지문의 경우 익숙한 작품이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비문학 지

문의 경우 언어제재와 과학제재가 도해가 없이 출제되어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또, 듣기, 쓰기, 읽기 영역의 이해와 표현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어휘, 어법, 문학,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지문을 선정하여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였다. 한편 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과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의 상식적인 측면의 독해력을 요하는 시사적인 내용의 지문과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

문학의 경우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5년 만에 극문학이 출제되는 한편 지난 4년간 꾸준히 출제되었던 수필은 배제되었다. 문학 지문의 경우 익숙한 작품이지만 작품에 대한 기본적이고 세심한 작품의 감상과 해석능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비문학의 경우 다양한 제재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문학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다. 특히 지문에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거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심화된 읽기능력을 필요로 하였다.

듣기 영역에서는 이야기, 대화, 강연, 토론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활용하여 언어 사용의 실제성을 강조하였다. 쓰기의 영역은 쓰기과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 쓰기의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어휘, 어법 영역에서는 문법적 지식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그 지식의 적용과 탐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속에 있는 <문학> 교과서에서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교육방송 교재와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대체로 학생들의

눈에 익숙한 작품으로, 개략적인 내용 파악보다는 세밀한 의미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9학년도 언어영역은 전체적으로 2008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유형과 난이도는 수능 시험 전에 치러지는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되었다. 다만 비문학에서 익숙하지 않은 제시문으로 인해 중하위권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제시문이 출제되었다. 또한 수능이 예측가능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문항의 소재는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범교과적인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2009학년도 언어영역은 단순암기에 의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지양하였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문은 언어, 예술, 사회, 과학, 인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었으며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추론, 비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늘어났다. 이는 기본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분석하는 능력, 적용, 추리 능력을 평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기존의 체제 및 출제 경향을 유지하였고, 정보나 자료를 이해하여 분석, 종합, 적용, 추리하는 유형이 늘어났다.

듣기 말하기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으며, 토론에서 단계별 조건을 도식화한 표를 제시하고 실제 토론 내용 중에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을 고르는 문제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을 뿐 전반적으로 새로운 유형보다는 익숙하고 쉬운 유형들이었다.

쓰기에서는 내용 구상하기, 되고, 표현하기, 어휘어법으로 출제되었다.

문학은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가 다소 낯선 작품으로 인식되지만 함께 제시된 제시문의 다른 작품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해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세부적 내용보다는 작품을 통한 심화·확장적 감상 능력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뤘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문항 분석

국어지식영역의 문항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국어지식영역의 문항들을 크게 어휘영역과 어법영역으로 나누었다. 어휘영역은 다시 ‘어휘의 이해’,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어휘의 관용적 의미 이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휘 영역은 ‘어법에 맞는 언어 사용’, ‘문맥에 적절한 언어 사용’, ‘맞춤법에 맞는 언어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5> 국어지식 영역 유형별 분류⁸⁾

어휘	어휘의 이해	0514, 0532, 0623, 0646, 0719, 0736, 0843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0614, 0727, 0822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0543, 0551, 0555, 0630, 0647, 0660, 0760, 0826, 0912, 0946
	어휘의 관용적 의미 이해	0536, 0643, 0651, 0713, 0745, 0950,
어법	어법에 맞는 언어 사용	0513, 0560, 0638, 0714, 0811, 0911
	문맥에 적절한 언어 사용	0512, 0750
	맞춤법에 맞는 언어 사용	0613, 0812

1) 어휘

8) 분류표의 숫자는 앞의 두 자리는 출제연도를 뒤의 두 자리는 문항번호를 의미한다.

(1) 어휘의 이해

어휘의 이해는 유의어, 고유어, 접사의 사용, 의성의태어,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문항	0514, 0532, 0623, 0646, 0719, 0736, 0843
----	--

가. 유의어의 구별

0514.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 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급방 갈게.
요즘에는 방금 전에 읽은 것도 자꾸 잊어버려.
- ② [매몰됐던 광부를 열흘 만에 구조했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야.
- ③ [그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고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이야기는 허황되고 황당한 것이었다.
- ④ [눈은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한다.
지난 50년간 변천해 온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 ⑤ [우리 선조들은 남녀 간에 식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밝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분별이 가능했다.

이 문항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⑤의 ‘식별’은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 따위를 구별함’의 의미를 지니고 ‘분별’은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름’, ‘일을 사리에 맞게

판단함'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⑤는 서로 바꾸어 써야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다.

0623. ㉠의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

- ① 개조(改造) ② 개선(改善) ③ 진보(進歩)
④ 향상(向上) ⑤ 발전(發展)

이 문항은 유의어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문맥상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보기>의 () 안에는 '개선', '진보', '향상', '발전' 등의 어휘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개조'란 '고치어 다시 만듦'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646. ㉠의 '뒤'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주례사 뒤이어 축가가 있겠습니다.
② 술래가 도망가는 아이들을 뒤쫓았다.
③ 배추에 갖은 양념을 뒤섞어 버무린다.
④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⑤ 고향을 자꾸 뒤돌아보며 산마루를 넘었다.

㉠'뒤엎어'에서의 '뒤'는 접두사로 '몹시, 함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

다. ③에서의 ‘뒤섞어’ 역시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사례로는 ‘뒤흔들다, 뒤틀다’가 있다. 접두사 ‘뒤’는 이 밖에도 ‘반대로, 뒤집어’의 의미(뒤엎다, 뒤바꾸다)와 ‘온통, 전부’의 의미(뒤덮다)를 지니기도 한다. 나머지의 ‘뒤’는 선후에서 ‘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다.

나. 고유어의 이해

0719.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알아주는 ② ㉡ : 태우며
- ③ ㉢ : 갓을 ④ ㉣ : 거칠게
- ⑤ ㉤ : 친다

㉠‘쳐주며 ㉡졸이며 ㉢가릴 ㉣모로 ㉤놓는다

이 문항은 생소한 고유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모로’는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옆쪽으로, 대각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쳐주다’는 인정하여 주다. 졸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조바심하다. ‘가리다’는 ‘빛, 외상값 따위를 셈하여 갚다’, ‘뺑소니를 놓는다’는 문맥상 ‘뺑소니를 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0736.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천명(闡明)되기도 ② ㉡ : 습득(習得)한
- ③ ㉢ : 의거(依據)하여 ④ ㉣ : 형성(形成)된
- ⑤ ㉤ : 별개(別個)의

㉠ 드러나기도 ㉡ 배운 ㉢ 따라 ㉣ 이루어진 ㉤ 다른

이 문항은 고유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의 기본형인 ‘드러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한자어로 바꾼다면 ‘노출(露出)되다’ 혹은 ‘노정(露呈)하다’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을 ‘천명되기도’라고 바꿔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천명(闡明)되다’는 ‘드러내서 밝히다’는 의미를 지닌 ‘천명하다’의 피동형이다.

다. 의성어 의태어

0843. ‘오감’ 중에서 <보기>의 어휘들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보 기>—
물랑물랑, 물씬물씬, 사각사각, 썩근썩근, 파릇파릇

- ① 미각 ② 시각 ③ 청각
④ 촉각 ⑤ 후각

이 문항은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물랑물랑’은 ‘여기저기가 야들야들하고 보드랍고 조금 무른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 의태어로 촉각과 관련이 있다. ‘물씬물씬’은 ‘코를 푹 찌르도록 심한 냄새가 자꾸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후각과 관련이 있다. ‘사각사각’은 ‘벼나 보리 따위를 벨 때, 또는 눈이 내리거나 눈을 밝을 때, 사과 따위를 씹을 때’ 나는 의성어이므로 청각과 관련이 있다. ‘썩근썩근’은 ‘숨 쉬는 소리’이므로 청각과 관련이 있다. ‘파릇파릇’은 ‘파르스름한 모양’이므로 시각과 관련이 있다. <보기>에서 미각과 관련이 있는 어휘는 없다.

라. 사전적 의미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지를 측정하려는 문항이다. 따라서 질문 유형은 주어진 정의에 부합하는 어휘를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형식의 문항이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053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 ② ㉡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 ③ ㉢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 ④ ㉣ : 말이나 글 속에 들어 있는 뜻.
- ⑤ ㉤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의 ‘훼손’은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의 ‘표명’은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의 뜻을 지니고 있고, ㉣의 ‘함의’는 ‘말이나 글 속에 들어 있는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 ‘혜안’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이라는 뜻으로 이상의 네 개의 답지는 올바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 ‘담보’는 ‘말아서 보증함’의 뜻을 지닌 말로 답지의 제시된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은 잘못된 답지이다.

(2)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는 어휘간의 반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어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 되었다.

출제문항	0614, 0727, 0822
------	------------------

0614.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걷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 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u>서서</u>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u>서</u> 버렸다.	↔	[A]
	[B]	↔	깎이다
	기강이 <u>서야</u> 사회가 안정된다.	↔	[C]

- | | | |
|------|---------------------------|------|
| [A] | [B] | [C] |
| ① 가다 | 가족에게 위신이 <u>서서</u> 기뻐다. | 내리다 |
| ② 가다 | 토끼의 귀가 쪽긋 <u>섰다</u> . | 내리다 |
| ③ 가다 | 회장으로서 체면이 <u>서지</u> 않았다. | 무너지다 |
| ④ 죽다 | 바지의 주름이 잘 <u>섰다</u> . | 무너지다 |
| ⑤ 죽다 | 친구와 같은 입장에 <u>서서</u> 말했다. | 벗어나다 |

<보기 1>은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 2>는 ‘서다’라는 단어의 다양한 반의어를 예문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 ‘시계가 서다’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시계가) 가다’가 맞고, [B]의 경우 ‘깎이다’와 반의 관계인 ‘서다’가 사용된 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가 맞고(체면이 서다 ↔ 체면이 깎이다), [C]의 경우 ‘기강이 서다’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기강이) 무너지다’가 맞다.

0727.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 : ㉡와 다른 하나는?

- ① 태어나다 : 자라다
- ② 들어가다 : 나오다
- ③ 올라오다 : 내려가다
- ④ 떠오르다 : 가라앉다
- ⑤ 나아가다 : 물러나다

㉠생겨나고 ㉡사라지다

㉠와㉡는 맥락상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태어나다’와 ‘자라나다’는 서로 반의 관계에 있지 않다.

0822. ㉠와 관련하여 ‘돕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돕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수재 의견을 내서 수재민을 <u>도왔다</u> .	구명하다
②	임금님을 <u>도와</u>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보필하다
③	친구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u>도왔다</u> .	조력하다

④	이 약은 원기를 <u>돕는</u> 효과가 매우 크다.	증진하다
⑤	두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해 회사끼리 <u>돕기</u> 로 했다.	제휴하다

이 문항은 단어 간의 유의관계를 묻는 문제로서 ‘돕다’의 다양한 유의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에서의 ‘돕다’는 ‘빈민,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다’의 의미를 지닌 ‘구휼’이 적절하다. ‘구명하다’는 ‘목숨을 구하다’는 의미이다.

(3)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는 어휘가 문맥 안에서 사용되는 지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이 문항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어휘들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분간해 내어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탐구 능력까지 측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문항번호	0543, 0551, 0555, 0630, 0647, 0660, 0760, 0826, 0912, 0946
------	--

0543.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대중이 없는데)와 이질적인 것은?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랏일을 좌지우지한단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서의 ‘대중’은 ‘대강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의미이고 ‘대중이 없다’는 것은 ‘어림짐작으로 헤아려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좌지우지’는 ‘자기 마음대로 부리거나 움직이다.’는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0551 .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에 제시된 ㉠~㉤는 모두 ‘소리’라는 단어이다. ㉠, ㉡, ㉢, ㉤는 모두 판소리의 창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는 ‘주장’이나 ‘의견’을 뜻하는 말이다.

0555.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너까지 치면 전부 열 명이다.
- ② 이 사과까지 전부 쳐서 얼마죠?
- ③ 그만하면 값을 잘 쳐서 판 것이다.
- ④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만 화해하자.
- ⑤ 큰아버지는 촌수로 치면 나와 삼촌 지간이다.

㉠의 ‘치자’라는 말은 ‘가정하자’나 ‘인정하자’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㉔은 기존의 공연 예술에서 중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의 공연 예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경향의 특징이다. 즉, 현대의 공연 예술에서는 정해진 구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공연이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에 해석이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논리와 이성이 투영되지 않은 ‘신체의 언어’에 가장 가깝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전의 공연 예술에서 중시하는 것들이다.

0660. ㉔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 화재로 집이 불타다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 빛으로 빛나다.
 ¶ 불타는 노을

- ①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 ③ 분홍색 매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

이 문항은 단어의 확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불타다1’은 기본적인 의미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불타다2’는 확장된 의미이다. ㉔는 저녁놀이 불타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인 ‘불타다2’에 해당한다. 그런데 ②의 ‘손꼽아’는 문맥상 ‘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풀이되므로 ㉔와 쓰임이 다르다. ①의 ‘물오른 싱싱한 생선’에서 ‘물오른’은 실제로 물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싱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③의 ‘두령을 수놓고’에서 ‘수놓고’는 실제로 수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④의 ‘바람 소리도 잠들고’에서 ‘잠들고’는 실제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람 소리가 사라져 없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⑤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에서 ‘살찌게’는 실제로 살이 찌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록을 더 짙게 보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것 역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0760. ㉠~㉤ 중, 문맥상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은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에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는 모두 ‘소멸될 위기에 처한 언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

0826.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녀의 숨씨는 아직 어머니 숨씨에 미치지 못했다.
 ②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③ 백성들의 원성이 왕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④ 광고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⑤ 산업 시설에도 황사 피해가 미친다.

‘태종에게 미치지 못하는 후세의 군자가’라는 문맥으로 볼 때, 이 부

분에서 ㉠은 ‘일정한 기준 혹은 수준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에서도 ‘미치지’라는 말이 ‘어머니의 숨씨’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의 ‘미쳤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의 ‘미치지’는 자동사로서 ‘말이나 생각이 어떤 대상에까지 이른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의 ‘미치는’은 타동사로서 ‘(영향을) 끼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의 ‘미친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09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흉내/시늉**

-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 ㄷ.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 ㄹ.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 ㅁ.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 ㅂ.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 ① ‘ㄱ’과 ‘ㄷ’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 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 ③ 내용상 ‘ㄱ’ 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 ④ ‘ㄹ’과 ‘ㅁ’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름’을, ‘조장’은 ‘더 하게 함’을 뜻하네.
- ⑤ ‘ㄹ~ㅂ’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이 문항은 문맥에 맞는 어휘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과 ㄴ의 문장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은 ‘공부를 하는 척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시늉’의 대상은 ‘장사꾼’의 행동이 아니라 공부인 것이다.

0946.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돌을 던지자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었다.
- ② 눈 내린 마당에 강아지 발자국이 나 있다.
- ③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 동전을 잃어버렸다.
- ④ 새로 산 차에 흠이 가서 속상하다.
- ⑤ 그는 나이가 차 장가를 들었다.

이 문항은 단어가 문맥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의 ‘지는’은 ‘얼룩’과 결합하여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의미하며, ‘생기다’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⑤의 ‘장가를 들었다’의 ‘들다’는 ‘~(생활)을 시작하다.’ ‘~의 처지에 놓이게 되다.’등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문맥적 의미가 ㉠와 다르다. ①의 ‘파문이 일었다’의 ‘일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를 뜻한다. ②의 ‘발자국이 나’의 ‘나다’는 ‘어떤 대상에 형체 변화가 생기다’를 뜻한다. ③의 ‘구멍이 생겨’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뜻한다. ④의 ‘흠이 가서’

의 ‘가다’는 ‘생기다’와 의미가 같다.

(4) 어휘의 관용적 의미 이해

어휘의 관용적 의미 이해는 한자성어 문항과 속담, 관용적 표현 등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출제문항	0536, 0643, 0651, 0713, 0745, 0950
------	------------------------------------

가.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주로 답지로 구성되며, 앞서 제시한 지문이나 보기와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0536.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이 문항은 관용 어구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의 ‘기술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다.’는 것은 과거의 위험 요인들을 살펴서 미래에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이처럼 옛것을 살펴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한다. ②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의 의미이다. ③의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의 의미이다. ④의 ‘일거양득(一舉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

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0643. 위 글로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이 문항 역시 관용 어구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제시된 지문에서 ‘유재건’은 글쓴이인 ‘나’의 친구로 나온다. 그것도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이 유사한, 뜻이 통하는 친구이다. 이렇듯 서로가 생각과 뜻이 같은 줄을 알기 때문에 ‘유재건’은 ‘나’에게 ‘이향견문록’의 서문을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 글에 드러난 친구의 생각과 사고에 깊이 동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서문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를 지닌 ①의 ‘지기지우(知己之友)’가 가장 적절하다. ②의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③의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의미한다. ④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의 ‘순망치한(唇亡齒寒)’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

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09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이 문항은 지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한자성어의 적용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에서 상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혼인을 치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박 처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에 마냥 있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①의 ‘이왕지사(已往之事)’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는 의미이다. ②의 ‘자포자기(自暴自棄)’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③의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의미한다. ⑤의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힘들기에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나. 속담

속담에 관한 문항도 한자성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답지로 구성되며,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문이나 보기의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0651. (가)를 고려할 때, (나)의 ‘천자’의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 ② 목마른 놈이 샘 판다더니.
- ③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 ④ 되로 주고 말로 받았군.
- 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상황에 알맞은 속담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남적을 치도록 기병 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유심이 이를 반대한다. 이에 대해서 천자는 유심을 신뢰하지 않고 정한담과 최일귀를 신뢰하여 유심을 귀양 보낸다. 하지만 (나)에서는 정한담이 오히려 백사장에 엮어진 천자를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심의 말을 듣지 않고 정한담의 말을 들었건만 정한담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속담에 빗대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②의 ‘목마른 놈이 샘 판다더니.’는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③의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고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의 ‘되로 주고 말로 받았군.’은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인다.. ⑤의 ‘그 나물에 그 밥이네.’는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074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에 나타내기
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이 문항은 속담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마)에서 조조는 조자룡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 번 큰 패배를 하게 된다. 적벽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도망하는 조조가 다시 공격을 받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다. 따라서 한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니 또 새로운 위험이나 난관에 부딪히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가 조조의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⑤ ‘병 주고 약 준다.’는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 관용적 표현

07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원칙적으로 ‘에’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관국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문항은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미연(未然)’은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극비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이다. 나머지 네 개의 어휘들은 ‘에’ 외의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2) 어법

(1) 어법에 맞는 언어 사용

문항	0513, 0560, 0638, 0714, 0811, 0911
----	------------------------------------

0513.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문장입니다.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징’입니다.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 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문장입니다.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안긴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라는 문장은, ‘담징은 땀을 씻었다’와 ‘땀이 이마에 흐른다’라는 문장을 결합하여 안긴문장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마에 흐르는’의 주어는 ‘담징’이 아니라 ‘땀’이 되어야 적절하다.

0560. ㉠~㉡중 ‘는’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항은 주어진 어휘의 문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 ㉢, ㉣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반면, ㉤는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

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0638.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보 기>—

‘벽돌집’은 ‘재료+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 ① 두부콩 ② 유리창 ③ 보리밥
④ 비단옷 ⑤ 밀짚모자

이 문항은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재료인 ‘벽돌’과 그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집’이 하나로 합쳐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말(벽돌)’로 만든 ‘대상(집)’을 뜻하는 말이 된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것은 ① ‘두부콩’이다. ‘두부콩’은 앞말인 ‘두부’는 결과물이고 뒷말인 ‘콩’이 그 재료이다. 즉, ‘앞말(두부)’을 만들기 위한 ‘재료(콩)’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시된 ‘벽돌집’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② ‘유리창’은 ‘유리(재료)’로 만든 ‘창(대상)’ ③ ‘보리밥’은 ‘보리(재료)’로 만든 ‘밥(대상)’, ④ ‘비단옷’은 ‘비단(재료)’으로 만든 ‘옷(대상)’, ⑤ ‘밀짚모자’는 ‘밀짚(재료)’로 만든 ‘모자(대상)’를 가리키므로 이 네 가지답지는 보기와 같은 구조를 지녔다.

0714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보 기>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용례) ·다리가 <u>건설되었다</u> . ·유물이 <u>발견되었다</u> .	못 + -되다 ² → 못되다 참 + -되다 ² → 참되다 막 + -되다 ² → 막되다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용례)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 <u>영광된</u> 자리에 서다.

-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구나.
- ④ ‘-되다¹’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이 문항은 자료를 통한 어법사용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되다¹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능동인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되다²’는 일부의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081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은 매우 크다. (⇒ 커다랗다)
 ② 그는 건강을 다시 찾았다. (⇒ 되찾았다)

—<보 기>—

- 그는 손으로 방문을 세계 밀었다. (⇒ 밀쳤다)
- 어제는 서쪽 하늘이 몹시 붉었다. (⇒ 붉디붉었다)

- ③ 그는 남의 말을 몰래 들었다. (⇒ 엿들었다)
- ④ 그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 (⇒ 헛디뎠다)
- ⑤ 그는 오늘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 싸움질했다)

이 문항은 어휘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두 단어로 표현된 것을 접사를 사용하거나 합성에 의해 같은 의미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 밀었다’는 ‘밀다’에 ‘-치-’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밀쳤다’로, ‘몹시 붉었다’는 ‘붉다’를 ‘-디-’라는 연결어미를 이용해 합성어로 만들어 ‘붉디붉었다’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의미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심하게 싸웠다’라는 두 단어를 ‘싸움질했다’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 즉, ‘-질’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행동을 저급하게 표현하는 의미를 덧붙여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0911.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 나는 ㉢ 그쪽에서 ㉣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㉔은 ㉑과 ㉕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㉔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㉔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이 문항은 인칭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㉔ ‘그쪽’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㉓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①의 ㉑ ‘내’는 ㉑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㉑ ‘내’는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㉑ ‘나’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가 ‘나의’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과 같은 예에서이다. ③의 ㉔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㉑ ‘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㉔ ‘그쪽’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④에서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㉔ ‘아버지’를 ‘당신’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⑤의 ㉔ ‘당신’을 ‘자기’로 바꾼다면 뒤에 이어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의 ‘당신’이 높임법에 맞는 것이다.

(2) 문맥에 맞는 언어 사용(고쳐 쓰기)

문항	0512, 0750
----	------------

0512. <보기>의 ㉑~㉔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 기>—

말다툼하는 친구들을 말린다고 ㉠끼어들었다가 말을 잘못해서 되레 친구들과 다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면 ㉡틀림없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벽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먼저 ㉢“아무리면 내가 너를 미워서 그랬겠니?”라고 말 한마디를 건네 친구의 오해가 ㉣풀려지도록 해 보자. ㉤물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말을 가려 쓰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은 ‘끼다’와 ‘들다’가 결합된 말이므로 ‘끼어들었다가’로 바뀌야겠어.
- ② ㉡은 문장 안에서 호응이 되지 않으니 ‘틀림없이’를 빼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미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미워해서’로 바뀌야겠어.
- ④ ㉣은 피동 표현이 두 번 사용되었으니 ‘풀리도록’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 ⑤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도’로 바뀌야겠어.

이 문항은 불완전한 글을 적절하게 고쳐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친구 사이에 개입하였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를 미리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문맥으로 파악한다면 다른 것은 모두 적절한 퇴고의 방향이지만, ‘물론’을 ‘그런데도’로 바꾸어 쓰면 문맥이 오히려 어색해진다. ‘물론’을 그대로 두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0750.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도록 ㉠을 바꾸어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이롭게도 ② 굉장하게도

- ③ 기발하게도 ④ 갑작스럽게도
 ⑤ 어처구니없게도

제시문의 ㉠은 ‘놀랍게도’로 ‘놀랍게도’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다’ 혹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운하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과학자들이 기존의 이론에 관찰된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랍게도’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처구니없게도’라고 할 수 있다.

(3) 맞춤법

문항	0613, 0812
----	------------

0613. <보기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x) → 오뚝이(o), 쌍둥이(x) → 쌍둥이(o)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둔(査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촌	외~, 처~

—<보기 2>—

-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랐다.
-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충깡충’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횡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횡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겠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보기 1>의 규정 중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이라고 한 뒤에 ㄱ으로 ‘부조’, ‘사돈’, ‘삼촌’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④처럼 ‘㉠의 ‘삼촌’은 음성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이라고 반응한 것은 옳지 않다. ‘깡충깡충’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 맞지만, ‘삼촌’은 어원이 반영된 것이다.

0812.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먹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 (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① ‘먹이’를 ‘머기’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② ‘목거리’와 달리 ‘목걸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예로

군.

- ③ ‘마중’을 ‘맞웅’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웅’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는 맞춤법 규정 제19항과 그 해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맞춤법 규정의 붙임에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⑤의 ‘마개’를 분석해보면 ‘막+애→마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간에 ‘애’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개’는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19항 [붙임]의 규정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①에서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며, 의미 또한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먹이’로 적는 것이다. ②에서 장신구로서의 ‘목걸이’ 또한 ‘-이’가 결합되었고,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③의 ‘마중’에서 ‘-웅’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면서 동시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의 ‘같이’는 ‘-이’나 ‘-음’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뜻도 유지하고 있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IV.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결과 및 제언

1. 교육과정과 국어지식 문항과의 상관성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국어과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한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체계에 따라 연도별 국어지식 문항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교육체계에 따른 연도별 국어지식 문항 분류

연도 국어지식 교육체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어의 본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어의 특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어의 변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어의 이해와 탐구	음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낱말	없음	38	없음	없음	11
	어휘	없음	없음	없음	43	없음
	문장	12,13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의미	14,32,36,43,51,55	14,23,30,43,46,51,60	19,27,36,45,50	11,22,26	12.46,50
국어에 대한 태도	담화	없음	47	60	없음	없음
	동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흥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습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규범과 적용	가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준어	없음	13	없음	없음	없음
	맞춤법	없음	없음	없음	12	없음
	문법	60	없음	13,14	없음	없음

2005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을 살펴보면 총 9개의 문항 중에 8문제가 국

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에서 출제되었고 규범과 적용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국어의 이해와 탐구 중에서 ‘의미’영역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장영역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 규범과 적용 범주의 문법영역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2005학년도 언어영역에서 국어지식 문항의 출제는 국어지식 교육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6개의 교육 내용 중에서 단 3개만을 반영하고 있어 교육내용의 반영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은 총 10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중 9문항이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 해당한다. 200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의미’영역에 편중되어 7문항이 출제되었고 ‘낱말’내용에서 조어법을 묻는 문항이 한 개가 출제되었다. 담화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서 ‘담화’내용이 반영되었다. ‘규범과 적용’ 범주에서 표준어 규정을 묻는 문항이 한 개가 출제되어 ‘표준어’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학년도 국어지식문항은 전년도에 비해 전체 문항 수는 한 문항이 늘었지만 교육내용은 단 4개만이 반영되어 편중현상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다.

2007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은 총 8문항이 출제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서 가장 많은 6문항이 출제되었다. ‘의미’내용에서 5문항이 반영되었고, 전체 담화의 내용에 비추어 지시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어 ‘담화’내용이 반영되었다.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을 묻는 문항과 피동접미사의 쓰임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되어 ‘규범과 적용’범주에서 ‘문법’내용이 반영되었다.

2007학년도 국어지식 문항 역시 교육체계 내용 반영에 있어 특정 영역

의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2008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은 5문항이 출제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가 반영된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데 5문항 중 4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오감(五感)과 관련하여 어휘의 분류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어휘’내용이 반영되었고 3문항은 ‘의미’내용이 반영되었다.

맞춤법 규정 중 한 항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 ‘규범과 적용’범주에서 ‘맞춤법’내용이 반영되었다.

2008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은 언어영역의 전체 문항수의 감소와 함께 5문항으로 출제 문항수가 줄었으며, 교육체계 내용 반영에 있어서도 3개만이 출제되어 특정 내용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9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은 전년도에 비해 한 문항이 줄어들어 4문항이 출제되었다. 4문항 모두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서 출제되었다. 품사 중 하나인 인칭대명사의 특성을 묻는 문항이 한 개가 출제되어 ‘낱말’내용이 반영되었다. 나머지 3문항은 ‘의미’내용에서 출제되었다.

2009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은 문항수의 감소와 더불어 교육체계 내용 반영 역시 단 2개만이 출제되어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5~2009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의 교육체계 내용 반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7> 2005~2009학년도 국어지식 문항의 교육체계 내용 반영도

국어지식 교육체계 내용		출제 문항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비율
국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질							
	국어의 변천							

국어의 이해와 탐구	음운							
	낱말		1			1	2	5.56%
	어휘				1		1	2.78%
	문장	2					2	5.56%
	의미	6	7	5	3	3	24	66.7%
	담화		1	1			2	5.56%
국어에 대한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규범과 적용	표준어		1				1	2.78%
	맞춤법				1		1	2.78%
	문법	1		2			3	8.83%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국어지식문항과 교육체계 내용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째, ‘국어의 본질’범주에서의 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영역은 언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국어만이 지니고 있는 특질과 역사, 한글의 가치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으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에 대한 체계적 지식 탐구의 동기와 필요성을 고양시키는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5학년도~2009학년도까지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국어에 대한 태도’범주 역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 범주는 정의적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가 적절하다. 이 영역은 지필평가인 수능으로써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은 수능 이외의 평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지식 문항 출제가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5년 동안 출제된 전체 국어지식 문항 36개 중 ‘국어의 이해

와 탐구' 범주에서 31문항 86.2%가 출제되었다.

'국어의 이해와 범주'는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다.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는 국어에 대한 명제적, 절차적 지식의 학습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은 객관식 지필평가인 수능에서 출제가 용이한 영역으로서 출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어의 이해와 범주'의 세부 내용의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에서 총 3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중 24문항이 '의미'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음운'영역은 한 개도 출제되지 않았고 '어휘'영역에서 한 문항, '낱말', '문장', '담화'에서 각각 두 문항씩 출제되었다.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서 '의미'내용의 비율이 무려 74.4%가 된다.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의 기본은 교육과정 내용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전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영역의 국어지식 문항은, 수능에서 평가할 수 없는 정의적 영역인 '국어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더라도 '국어의 이해와 탐구'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국어의 이해와 탐구' 내에서도 '의미'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국어지식문항의 출제 방안 제안

1) 국어지식문항의 출제 비율 확대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2009학년도의 언어영역 전체 문항 수에서 국어지식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학년도 15%, 2006

학년도 16.7%, 2007학년도 13%, 2008학년도 10%, 2009학년도 8%로 2006학년도를 제외하면 채 15%도 되지 않은 낮은 수치로 출제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평가 내용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정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지식·문학 여섯 영역의 교육적 성취를 고루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국어교육이 여섯 영역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문학 등 타 영역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국어 지식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길은 국어지식문학의 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언어영역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5개 영역이 출제되고 있다. 5개의 영역들 중에서 듣기·말하기·쓰기는 객관식 지필평가라는 수능시험의 특성상 그 출제 비율을 높이기가 다소 어렵다. 하지만 국어지식 문학의 경우 객관식 지필평가로도 충분히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출제비율을 타 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 이상으로 출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어지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 영역별 균등한 문제 출제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대로 언어영역에서 국어지식 문학의 출제는 국어지식 영역 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서 ‘의미’영역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

다. 또 의미 영역에서는 단어가 지닌 의미나 문맥적 의미 파악 등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의미 영역과 관련된 문법지식의 평가라기보다는 글 혹은 문장의 내용 파악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읽기 평가의 성격도 함께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문항 출제는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체계를 성실히 반영하지 못한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국어지식영역들을 균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야 실제 수업에서도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지식 영역이 어떻게 출제되어지는지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장에서는 기초적 논의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어지식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의 평가 목표를 정리하였다. 국어지식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지식교육의 내용과 국어지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지식 영역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2009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2005학년도~2009학년도까지의 언어영역의 출제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문항을 어휘영역과 어법영역으로 나누어 36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문항들 다시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체계에 따라 나누어 보고 이를 통해 국어지식 문항 출제가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 편중되어 출제됨을 지적하였다. ‘국어의 이해와 탐구’범주에서도 ‘의미’영역에 편중되어 출제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는 국어지식 문항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교육과정 체계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교육과정에서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부(1997),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김광해(1999),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1999),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김중신(2002), 『수능 언어영역의 문제의 방향성: ‘이상’과 현실』, 함께
하는국어교육, 봄.

박도순·김대행 외(199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전략 방
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영진 외(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메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황정규 외(1991),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학위논문

서재근(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법 관련 문항 분석 연구
」,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지연(2003),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분석 연구: 어휘 문항을 중
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철(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개선 방안」, 동국대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연화(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분석 연구: ‘국어 지식’ 부분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근(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화정(2002),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평가문항의 난이도 예측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유미(2004),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듣기·쓰기 영역의 평가에 관한 연구: 최근 3년간 대수능을 중심으로」.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한영현(2005),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비교 연구: 심화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언어 영역 평가 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nalysis on the Questions of Korean Language
Knowledge in the Nation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entering on the Results of the 2005 to 2009 Nation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Kook, Sin A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ince the nation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introduced in 1994, it has been carried out, and this year also will hold the test. The test appeared as a remedial ac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achievement test such as simple memorizing of knowledge.

The national scholastic ability test improved from the national achievement test is a test to know the scholastic abilities of students for the entrance of a college. It measures the thinking power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areas of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inquiry, and English, following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based on the materials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It is not a test that measures the inborn ability and aptitude of a student formed for a long time but a test that measures their general scholastic aptitude among scholastic abilities obtained from school education, which is essential in the class of a college. Also, its questions are made fitting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They are not composed of the contents of specific textbooks but are made using the materials of an integrated curriculum. As the test consisting of such questions avoids simple memorizing of knowledge, it receives a positive reaction as a test in which the necessity of class focusing on language activity is outstandingly revealed.

Korean language has the largest portion in the test. It aims at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knowledge learned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Its area consists of listening, writing, reading,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so on. Among the areas of Korean language, this paper analyzes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In order to know the composition of questions in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the paper analyzes the questions according to their types and discuss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analyzes whether the questions meet the purpose of the test above mentioned and what connection the questions have with the education system in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It is expected that more constructive evaluations for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will be performed through the paper.